

경제



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삼성 땅 보유액

4조 8,881억원

10대 그룹 중 최고

변동성 커진 증시... 자산 배분 유리

소액투자자 쉽게 이용 프로그램 출시

주식·채권·부동산 '편입 자산군' 다양

▲랩어카운트(Wrap Account)=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 고객이 예약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답답하며, 편입 대상 펀드 상품들은 기존에 수익률 등이 검증된 국내외 운용사들의 우수 펀드들이 고루 섞여 있다. 또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역시 매력적이다.

이 상품의 총 보수(선취 판매 수수료 0.3% 포함)는 성장배분형, 적극배분형이 가입금액의 2.5%, 보수적배분형의 경우 1.2% 수준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일임형 랩어카운트(2.5%)나 자문형 랩어카운트(3.0%), 일반 주식형펀드(2.5%)에 비해 높지 않다. 더욱이 투자절차, 한 해지,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 등이 간단하게 이뤄지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1년에 2차례까지 판매수수료 없이 자산을 재배분할 수도 있다. 다만 설문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투자 유형과 미세한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를 추종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변경이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오히려 덜 민감한 대응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펀드 투자에도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집중시켰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올해는 적절한 자산배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경우 자산 규모가 큰 고객 투자자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PB(프라이빗뱅킹) 센터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의 투자자들에게 PB 문턱은 높기만하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배분 프로그램을 최근 출시했다. '푸르 어드바이저 (Pru Advisor)'가 그것이다. <자산배분 서비스란>=이 서비스는 미국 푸르덴셜금융에서 사용중인 금융자산 배분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과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게 개선했던 것이다. 투자성향과 기간 등에 맞춰 자산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랩어카운트 상품과 유사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특색이 있다. 특히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아닌 설문지를 통한 상담으로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유형을 선택한다는 점이 다르다.

실문에서 조사하는 투자자 관련 정보는 투자자금 규모, 향후 5년간 재정 상태에 대한 전망, 투자경험, 투자목적, 선호하는 자산유형, 시장상황에 따른 장단기 목표 수익률, 투자 후 주로 우려하는 상황 등이다.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한 투자결정 방식, 선호하는 기초자산 대상 지역 등도 이 서비스에서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이다. 이런 조사를 통해 나온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증권사는 '보수적배분형', '안정배분형', '균형배분형', '성장배분형', '적극배분형' 등 5가지 유형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시한다. 보수적 배분형에 가까울 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 비중이 높고 적극 배분형에 근접할 수록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이 높아진다. <다양한 자산군 매력>=더욱이 이 상품은 편입대상 자산군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관련 자산은 국내 주식펀드, 글로벌 주식펀드, 아시아주식펀드 등 3가지, 채권관련 자산은 국내 채권펀드, 글로벌채권펀드, 아시아채권펀드와 국내 채권 등 4가지가 있으며, 부동산 증권펀드도 편입 가능한 자산군에 속한다. 자산별·지역별 편입 대상의 폭이 넓은 것은 그만큼 분산투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펀드 선택은 푸르덴셜자산운용에서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토지 보유액이 5조원에 육박,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10대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2005년 말 현재 보유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조8천881억원에 달해 전년 말 대비 19.75% 증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보유토지 규모가 2조6천295억원과 2천597억원으로 각각 34.57%와 31.47% 급증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토지규모가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보유토지가 크게 늘어나며 그룹 전체 토지보유액이 4조8천674억원에 기록, 삼성에 이어 간발의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SK그룹은 SK㈜의 보유토지가 줄어 전체 토지보유액은 3조5천185억원으로 5.67% 늘어나는데 그쳤다. LG그룹은 LG필립스LCD, LG마이크론 등의 보유토지가 각각 41.50%와 68.11% 급증한 영향으로 전체 토지보유액은 2조4천306억원으로 22.35% 증가,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땅부자' 기업으로 잘 알려진 롯데그룹은 2005년에도 계열사들의 보유토지가 결정적으로 늘어나며 4조4천852억원어치의 토지를 확보, 10대그룹 중 3위에 올랐다. GS그룹은 보유토지가 6천495억원으로 13.74% 증가했으며 한진그룹 1조2천232억원(11.43% ↑), 현대중공업그룹 1조1천545억원(5.05% ↑), 한화그룹 1조2천439억원(14.05% ↑), 두산그룹 1조4천956억원(9.49% ↑) 등이었다.

취업준비자 54만명 통계집계 이후 최대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준비자는 모두 54만3천명에 달했다. 이는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25만1천명과 학원 등에 다니지 않으면서 집이나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29만2천명을 더한 수치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33만2천명이었던 취업준비자는 2003년 월평균 34만5천명, 2004년 월평균 38만3천명으로 늘어나다 2005년 월평균 45만6천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 48만4천명으로 늘어난 취업준비자는 한달만에 6만명 가까이 늘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에 비해서 무려 63.6%, 21만1천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월드컵 응원 패션 16일 강남에서 열린 야후! 코리아 거거결스 3기 발대식 이벤트 '미리보는 월드컵 응원 패션 경연대회'에서 참가 여대생들이 다양한 응원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발대식은 거거결스 50팀(100명)이 참가했으며 우수팀에게는 독일 월드컵 현지 리프트 자격이 주어진다.

가장 존경받는 국내 기업 '삼성전자' 3년 연속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선정됐다. 1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산업계 간부 3천757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184명, 소비자 4천9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3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는 혁신능력, 주주 가치, 고객 가치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뽑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LG전자, 안철수연구소, SK텔레콤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새롭게 30위권에 합류한 기업으로는 롯데칠성음료, NHN, 국민은행, 현대산업개발 등이 있었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5%, 50.4%로, 1천대 기업의 평균(영업이익률 6.4%, 자기자본비율 4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생명보험(10위), 삼성에버랜드(11위), 삼성SDS(12위), 삼성SDI(13위), 삼성물산(15위) 등 7개가 30위권 안에 들었다.

“아시아 경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투자전략가 마크 파버 “미국 경제는 거품끼어” 1987년 ‘블랙 먼데이’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정확히 예견해 ‘닥터 돌(Dr Doom)’이라는 별칭을 얻은 세계적 투자전략가 마크 파버(Marc Faber)가 아시아 경제에 대해 낙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거품이 끼어 있어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파버는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에서 생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과거 골프와 어리석은 부동산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던 아시아 기업들이 지금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아시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시아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일”>= 파버는 “왜 많은 투자자가 아시아에서 ‘비중축소’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중국의 성장 속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많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5배에 달하는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 소비는 미국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파버는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면서 “중국 외에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권역이 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아시아의 부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몇 년 안에 서구 사회는 아시아 저비용 국가들에서 고부가 가치의 작업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달러자산에만 의존”>= 파버는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 “세계 최고 부자나라” 미국은 달러 자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미 연방은 국가 채무 상한선을 9조달러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국가 채무는 1세대 동안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처분 가능한 수입의 1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는 지적했다. 파버는 “버닝기 새 FRB 의장의 임무는 국민의 과다 소비로부터 차탈게 될 파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전자 수출 효자품목 맞아?

가전·컴퓨터 등 급감으로 몇년째 부진 2000년에 29억달러에 달했던 컴퓨터 수출액은 이후 5년 연속 격감하면서 지난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전기·전자 수출액은 883억달러로 전년 대비 고작 0.6% 증가하는데 그쳐 답보상태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기·전자 수출이 부진한 것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수출효자 품목이던 가전 및 컴퓨터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가운데는 냉장고 수출이 지난해 16.9% 증가했을 뿐 TV(-14.2%), 에어컨(-44.4%), 세탁기(-18.7%), 음향기기(-15.4%), 전자레인지(-31.1%), VTR(-23.9%) 등은 마치 추풍낙엽처럼 맥을 못쳤다. 이 가운데 음향기기는 5년 연속, 전자레인지와 VTR의 경우는 3년 연속 수출이 줄었다.

Table with 6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Includes companies like (주)빅마켓, (주)한진기공, (주)신원건설, etc.

환란때 심화된 빈곤·불평등 최근까지도 계속 악화 추세

외환위기 전후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악화됐으며 외견상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최근까지도 빈곤과 불평등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김미근 박사팀은 최근 내놓은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구소비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니(한 나라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센(한 나라의 빈곤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등 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빈곤과 불평등 동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빈곤과 불평등의 수준은 사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빈곤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은 사민주의 국가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2003년에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실태를 보여주는 센 지수분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빈곤율과 빈곤층 사이의 분배효과가 크게 악화됐으며,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됐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몫이 빈곤층과 비빈곤층에 얼마나 골고루 전해지는지를 경제성장의 몫 분배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1996~2000년, 그리고 2000~2003년 사이에 비빈곤층의 몫은 늘어난 데 반해, 빈곤층의 몫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40% 미만의 계층을, 비빈곤층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계층을 말한다.